

입당 송 |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 지혜 3,1-9

화답 송 | 시편 126(125),1-2 ㄱ,2 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로마 8,31L-39

복음환호송 | 1베드 4,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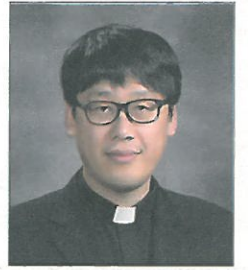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 음 | 루카 9,23-26

영성체송 |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옥송만 가롤로 신부 |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장

순례를 통해 성장하는 신앙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인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순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청년들에게 순례하면서 느낀 점에 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 알려주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례하면서 순교자들의 모습을 비추어 제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순교자들 같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순례를 통해서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 안에서 순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례라는 것은 단순히 순례지를 방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례를 통해 순교자들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분들과 같은 신앙을 살도록 다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희년을 맞이하여 교구에서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안에 특별 코스로 ‘김대건 신부 치명 순교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집 베드로 증언에 따르면 “문초와 형을 받은 사정을 모르지만, 그해 7월(음력) 형장으로 가실 때 죄인이 서소문 밖에서부터 새남터까지 따라갔으며, 당고개에 이르러 한참 지체할 때 김 신부께서 들것에 앉아 있는데, 땀이 흐르고 상투가 풀어지자 운반하던 사람이 다시 상투를 틀어주던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김 신부님은 보라색 겹

저고리를 입으셨고, 머리를 들어 좌우를 살펴보셨습니다.”(기해·병오 순교자 시복 조사기록 회차 86)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에 따라 우포도청 터를 시작으로 당고개 순교성지, 새남터 순교성지, 절두산 순교성지에 이르는 길을 순례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순례하면서 신부님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당히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모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이 마야흐로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사후에 행복하려면 천주를 믿으시오.”(새남터에서의 마지막 증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는 순교 성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순교자 성월은 “순례로 함께 하는 희년의 기쁨, 9월 사랑 동행”이라는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순례를 통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순교 성인들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삶 안에서 예수님과 복음 선포를 위하여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해 봅시다.



절두산 순교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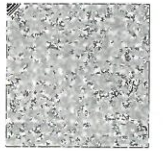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각자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만났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며 말씀에 머무릅니다. 순교자들의 손과 십자가에 마음을 얹어 함께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성인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으며, 순교자들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토마스 머튼)



김문숙 요셉파나 | 가톨릭사진가회



송희준 아델라 | 배우

빛과 그림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속엔 예쁜 것과는 또 다른 슬픔의 깊이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도 빛과 그림자는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계절이라 하던가요. 누군가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큰 슬픔은 그것들과의 이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두 존재와 이별했습니다. 장미꽃이 붉어 아름답던 5월, 아버지께서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며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동안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병세가 나빠지셨던 아버지는 미처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이 믿을 수 없어 제대로 실감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투병을 곁에서 지키는 동안 본의 아니게 반려견과의 이별도 겪었습니다.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선택으로 인해 오해와 비난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의 인격에 대한 비난과 심지어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저는 어느 것도 마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제 곁을 떠나실 것처럼 숨조차 어렵게 쉬시는 아버지께 더한 슬픔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일로 인해 아버지의 병세가 더 나빠진 것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드러내지 못하고 안으로 안으로 슬픔을 삼키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들과의 연이은 이별, 오해에서 비롯된 여러 비난, 한꺼번에 저를 덮친 고통 속에서 삶에 대해 사랑을 지키겠다는 저의 의지는 점점 빛이 바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여러 감정과 상황들이 어떠한 것들은 부

유하고 어떤 것들은 침잠하며 점차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저의 부족함에서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사를 드리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저를 삼키고도 남을 큰 파도 앞에서 그래도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절 붙잡았던 것은 제 안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간들은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연약함을 인정하며 더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타인에게 화살을 돌리며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도 피하지 않고, 마음속에 드리운 그늘이 있다면 곁에 있을 빛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가끔은 어느 것도 보이지 않을 만치 너무나 그늘이 짙어 손에 어떤 것도 잡히지 않을지언정, 계속해서 더듬고 느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과 모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꿈에서라도 아버지와 제 반려견이었던 모네를 다시 품에 힘껏 껴안아 보고 싶습니다.

나를 이끄는
성령구절

세로
사랑
하이라

김태라 루칠라
명일동성당

요한복음 15장 17절



순교 성인 김대건 순교는 부활 신앙을 가리킨다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자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희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제 어머니 (교) 우르술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10년이 지나 며칠 동안 아들을 볼 수 있었으나 다시 곧 아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부디 슬퍼하실 어머니를 위로해 주십시오.”

(감옥 안에서 1846년 8월 26일 라틴어로 쓴 마지막 편지)

8년 여간의 신학생 시절과 13개월의 사제 생활 중, 겨우 마지막 부활절에 모자(母子) 상봉한 후 순교길을 걸으셨던 김대건 새 사제. 25세의 짧은 생애는 그 종착지를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가요?

1920년대 79위 시복 과정에서 가경자였던 김대건 신부님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교에 대한 기록과 증언으로 김 신부님의 질료적(물리적) 죽음은 너무도 분명하지만, 사형을 언도한 이유가 신앙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간 죄, 곧 국사범(國事犯)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순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상적 죽음에 있어서, 그 사형이 신앙에 의한 것이어야지, 다른 범죄에 의하여 죽음이 선언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의 심문 과정과 신자들의 증언에서 신부님이 배를 타고 서해를 건너간 것이 교회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실제로 천주교를 위해서, 마카오로 유학을 갔던 것이고, 선교사들을 조선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황포 돛배를 타고 서해를 건너갔던 것입니다. 물론 김대건 신부님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온 것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서양어로 쓴 편지는 모두 자신이 쓴 것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애써서 변호하였습니다.

“깃을 아주 가늘게 깎아서 아주 작은 글자로 몇 줄 썼습니다. 그다음 뾰족한 끝을 자르고 큰 글자들을 만들었습니다. ... 이것이 그들을 만족시켰고 그래서 그들은 편지 문제에 대해 더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1846년 8월 26일)

무엇보다도 김대건 신부님의 형상적 죽음을 확인시켜주고, 순교를 확증시켜주는 부분은 새남터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나의 마지막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과 교류한 것은 나의 종교 때문이요, 나의 하느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은 다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천주교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학생 시절의 성장통을 극복하고 부모와의 육정마저 물리치고 김대건 신부님의 삶이 지향했던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그것이 순교라는 이름의 죽음으로 비취질지도 몰라도 그 속뜻은 부활이었습니다. 순교자 성월에 25세 청년 사제가 들려주는 신앙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내가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의 일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는가?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천만 바란다.”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오늘(9월 19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 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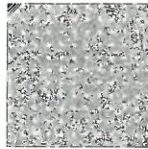
9월 21일(화)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곡식을 추수하도록 돌보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위령기도'를 바칩시다.

9월 20일(월)~22일(수)는 '추석 연휴'로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8년 9월 25일 박동헌 마르코 신부(55세)
- 1980년 9월 20일 이문근 요한 신부(62세)
- 2002년 9월 22일 박고빈 시메온 신부(67세)
- 2004년 9월 25일 박고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8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 ① 밤 9시에 한반도 평화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 외 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바칩니다.
- ② '평화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 위한 기도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교구청알림

2021년 3차 온라인 전례학교(이론)

대상: 전례봉사자, 일반신자
 때: 10월1일(금)~11월30일(화)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 회비: 2만원(9월27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확인(www.samok.or.kr) /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9월 사랑 동행, 순교자성월을 달는 미사 안내

때: 9월26일(일) 오후 3시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집전: 정순택 주교(순교자현양위원회 위원장)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스탬프를 완성한 순례 참여권을 미사 당일 제출하시면 축복장을 드립니다(오후 1시~오후 5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10월12일(화)까지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우편 발송 가능합니다 / 문의: 02)2269-0413 사무국

사목국 '성서못자리' 온라인 성서못자리 강좌안내

접수기간: 10월3일(일)까지 / 문의: 02)727-2379
 접수링크: 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온라인 성서못자리 강좌('에드워드' 플랫폼 사용)
 수강기간: 12월31일까지 / 회비: 10만원
 수강방법: 에드워드 ID와 비밀번호로 에드워드 에 접속하여, 20강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강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면 에드워드 강의실 링크와 ID/PW를 문자로 전송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문화학교 2021 가을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02)727-2047 문화홍보국

신앙,인문학을 만나다	9월30일~11월4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가슴쿵쿵 교회사	10월6일~27일 매주(수) 19시30분~21시(중 강의)
온라인 독서모임 달달책방	10월4일~30일(4주간)

갤러리1898 추석연휴 휴관 안내 / 문의: 02)727-2336
 휴관일정: 9월17일(금)~28일(화)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10월6일부터 매주(수)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2021년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 상담, 의사소통훈련, 피정 등(온라인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or.kr)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학교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022년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안내

1월~6월: 9월24일(금) 14시, 대성당 (오후 1시 대성당 입구에서 추천 순서번호표를 나눠드립니다. 한 커플당 하나의 번호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12월: 2022년 1월~2월 중 추천 예정(추천 일정 별도 공지) / 이중추천,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마지막 순서로 배정됩니다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천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9월28일(화) 14시, 서울대학교 양천(지)성당

다솨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oun.net)

직원모집

문정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02)431-5233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지 5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및 PC(한글·엑셀 등)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에서 다운),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9월25일까지 방문(서울시 송파구 송이로37가길 14)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서원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873-7900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회계업무, 컴퓨터 활용(한글·엑셀 등)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에서 다운),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9월30일까지 우편(우 08781,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46길 1) 방문 접수 / 1차(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성수동성당 방호원 · 주방근무자 모집

분야: 주간 방호원 1명·주방근무자 1명 / 계약직 업무: 시설관리, 청소, 미화 업무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4774,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23 성수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kyeon@seoul.catholic.kr) 접수 제출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장위동)	010-8563-6875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pnunskorea@catholic.or.kr)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9월26일(일) 14시	온라인 Zoom	010-4732-8247 김엘리사벳 수녀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0월1일~31일 / 문의: 010-8874-7970

길을 찾아서(성소식별 대피정)
대상: 길을 찾는 35세 미만 미혼 여성
때: 9월24일(금)~26일(일) / 회비: 2만원
문의: 010-9816-0072(pddm.or.kr)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문의: 010-3340-0201 도미니코 피정의집(형성)

Table with 2 columns: 호소 단식, 성경 완독. Dates: 9월30일(목)~10월3일(일), 10월9일(토)~17일(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Table with 2 columns: 제94차, 제95차. Dates: 10월15일(금)~23일(토), 11월5일(금)~13일(토). Phone: 061)373-3001, 010-3540-900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Table with 2 columns: 성지순례 피정, 자연순례 피정. Dates: 10월2일~5일, 10월15일~18일, 10월8일~10일, 10월21일~23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Table with 2 columns: 1박2일, 3박4일, 8박9일, 40일. Dates: 10월23일(토)~24일(일), 12월11일(토)~12일(일), 10월1일(금)~4일(일), 11월25일(목)~28일(일), 10월12일(화)~20일(수), 11월9일(화)~17일(수), 9월24일(금)~11월2일(화), 12월20일(월)~2022년 1월28일(금)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음악 클래식기타 교육
성음악 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교육
때: 매주(금) 14시~16시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영성특강
때, 곳: 매주(금) 15시30분~16시30분, 명례방
회비: 회차당 1만원(선착순 접수) / 문의: 02)3147-2402

Table with 3 columns: 9월, 10월, 12월. Topics: 103위 순교성인들, 바오로사도와 교회의 신앙, 프란치스코 교황 문헌. Contact: 윤원진 신부, 김상우 신부, 박동호 신부

성경속에서 나를 만나다(전교가르멜 수녀회)
대상: 여성 신자 / 문의(접수): 010-2037-9262

Table with 3 columns: 오전반, 저녁반, 젊은이반. Dates: 10월6일부터 첫째·셋째주(수), 10월13일부터 둘째·넷째주(수), 10월16일부터 매주(토). Contact: 비대면 총 7회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미사반주법 및 목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10월5일(화)부터 10주 / 문의: 02)338-3793
주최: 아쿠나소르간연구소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입학 모집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기간: 단기 1년 또는 장기 / 백신 접종 가능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수시 가능 /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cdcc.co.kr

온라인 회복 성경여정 '성경 한 권으로 보자'
때: 10월5일부터 매주(화) 총40주, 낮강의 14시·밤강의 22시 중 선택 / 지도: 김태평 신부(팔로터회)
문의(접수): 010-8911-5957 천주교사도직연합회

가톨릭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수시 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1차 모집: 9월10일~10월4일 / 입학문의: 054)851-3021(http://www.csj.ac.kr) 교무입학처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대구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SW분야 입학
전국 최대 가톨릭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SW 중심대학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부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와 컴퓨터정보학부에서 우수한 SW교육과 장학 혜택을 받으며 글로벌 SW인재로 성장할 수혜생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 문의: 053)850-2871(http://software.cu.ac.kr)

모집

제8회 가톨릭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모집분야: 행사 진행(영화제 기간), 자막번역·감수(사전)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미사

성서모임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곳: 매월 넷째주(일) 9월26일 15시,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가정선교회 10월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Table with 2 columns: 첫토성도, 생가영성. Dates: 10월2일 14시~16시30분, 10월19일 13시30분~16시30분. Topics: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현주 회장

카타리나 피정집 / 문의: 010-9715-1203
곳: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형성) / 개인, 자체취사

꼬메스영성상담소
치유와 성장이 있는 동행. 심리상담, 영성상담, 전화상담(주1회) /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개인(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제주도 관광
제주순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 '치매안심병동' 운영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피부과
성사생활 가능, 간병인 상시 모집 / 문의: 041)950-1008

삼양동 선교부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사목
대상: 개인, 가족, 부부, 청소년 누구나(무료 10회기)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제107회 언택트 가톨릭독서콘서트
주최: 닥터 김용민의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법
작가: 김용민(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
때, 곳: 9월23일(목) 오후 8시, 청담동성당 대성전(비대면) / 문의: 02)3447-0750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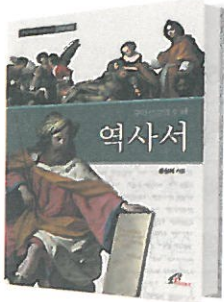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Table with 2 columns: 가족관계 성장과 소통훈련, 전문심리치료. Dates: 10월12일~11월23일 매주(화), 10시~13시(7주)

성라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Table with 2 columns: 청소년, 전문 심리치료. Topics: 학습전략, 진로탐색,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가족(분노·우울·불안·부적응) 종합심리검사 / 비대면 화상상담 가능



신간
구약성경의 이해
-역사서(구약 중급)

윤성희 지음
바오로딸 | 436쪽 | 2만천원
문의: 02)944-0944

이 책은 성경 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은지 설명한 뒤, 성경 속 역사 기술의 다양한 유형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역사서 내용을 전체 흐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신간
식별하는 삶

엔조 비안키 지음
바오로딸 | 170쪽 | 1만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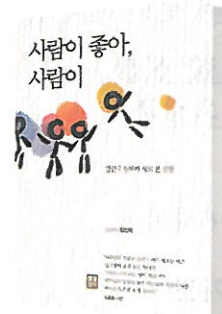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보고 알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하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근본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식별이다. 이 책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찾고자 하는 젊은이나 모든 신자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신간
2021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62쪽 | 무료배포(재고 소진 시까지)
문의: 010-7475-6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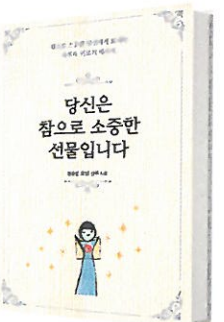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2년마다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를 출간한다. 2021년판 보고서 요약집이 한국어로 발행되어, 휴대폰 문자 또는 홈페이지(www.churchinneed.or.kr)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신간
사람이 좋아, 사람이

김인국 지음
생활성서사 | 264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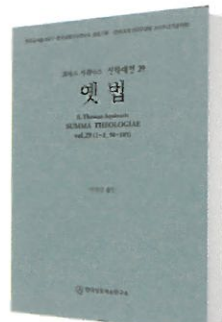
하느님께서 저 먼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듯 신앙도 우리 삶과 생활 안에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여 '참신앙'을 발견하도록 돕는 책이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 무더운 여름날 굉장히 시원한 음료를 마신 듯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간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선물입니다

염삼섭 지음
기쁜소식 | 212쪽 | 1만8천원
문의: 02)762-1194

수도회 입회 25년을 맞이한 저자가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담은 글을 엮어 펴냈다.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픈 마음으로 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겸손함과 감사, 새로운 출발이 갖는 글들이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축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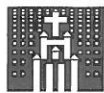


신간
톰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29
옛 법

톰스 아퀴나스 지음
한국성토마스연구소 | 672쪽 | 4만원
문의: 02)762-1194

'옛 법'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활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세율법을 가리킨다. 아퀴나스는 논고에서 모세율법 자체에 관한 분석, 도덕 규정들과 예식 규정들 그리고 사법 규정들의 분류와 해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구원의 상태라는 율법의 목적을 부각시킨다.

제2196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안내

9월 21일(화) 한가위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9월 22일(수)	미사 없습니다.(사무실휴무)

연도 : 오전 6시미사 (미사후에 연도 바칩니다.)
오전 9시/11시미사 (미사전에 연도 바칩니다.)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지향 신청
일시 : 9월 19일 (주일) 오늘까지

◎ 청년미사 재개

일시 : 9월 26일(주일) 오후 6시미사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10일(화)~11월 17일(수)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중고등부차모회장 (010-7752-4976)
※ 신청은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9. 12)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208	832	1,376	45.2%	42.0%	37.7	36.0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서울대교구 내 성지개발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리모델링 기금 (9월 6일~12일)

이지만이십만원
누 계916,446,861원

◎ 감사헌금 (9월 6일~12일)

강을성이십만원 익 명일십만원
익 명일십만원 익 명오만원
송명자일십만원 김태홍일십만원
함영동일만원 한숙희이십만원
오광선일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4주일)

교무금9,470,000원
주일 헌금3,595,600원
리모델링 2차 헌금1,634,000원